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추측
표현 대조 및 제시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구 창 협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추측
표현 대조 및 제시 방안 연구

A Study of Korean–Chinese Contrast of Guessing
Expression and Presentation Solution for Chinese Learners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구창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추측
표현 대조 및 제시 방안 연구

A Study of Korean-Chinese Contrast of Guessing
Expression and Presentation Solution for Chinese Learners

위 논문을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구 창 엽

구창엽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추측 표현 대조 및 제시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구 창 엽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표현을 더 잘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본고는 한국어 추측 표현을 중국어 추측 표현(여기사)과 대조하는 동시에 현재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제시 방안을 구안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2장에서는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한국어 추측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조했다. 대조 결과 '-겠-'은 要, 會와 대응하고 '-(으)ㄹ 것이다'는 要, 會와 대응하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好像, 似乎와 대응했다. 또한 대응할 때 발생하는 제약 사항을 같이 제시했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을 통해 일부 교재에서 번

역한 예문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한국어 추측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일관성이 없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인식 정도 차이와 인식 부족을 발견했다. 본고는 이러한 부족이 교재에 나타나는 문제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재의 부적절한 중국어 번역 예문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제시 방안을 제안했다. 제시 방안은 초급 수준과 중급 수준으로 나누었다. 초급 제시 방안에서는 적절한 예문과 번역을 제시하였고 중급 제시 방안에서는 특별 수업으로 구성하여 교안을 작성해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이때 문법 제시, 설명, 연습, 활동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제시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표현을 학습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정확하고 일관된 예문의 번역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1.3 선행연구	3
1.3.1 국어학에서의 연구	3
1.3.2 대조언어학에서의 연구	4
1.3.3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	6
II. 한·중 추측 표현 특성 및 대조	7
2.1 한·중 추측 표현 특성	7
2.1.1 한국어 추측 표현 특성	7
2.1.2 중국어 추측 표현 특성	9
2.2 한·중 추측 표현 대조	8
2.2.1 '-겠-' 및 要, 會	8
2.2.2 '-(으)ㄹ 것이다' 및 要, 會	02
2.2.3 '-(으)ㄴ/는/(으)ㄹ 것 같다' 및 好像, 似乎	22
III.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 제시 및 학습자 인식 현황	26
3.1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 제시 양상	22
3.1.1 '-겠-'의 제시 양상	28
3.1.2 '-(으)ㄹ 것이다'의 제시 양상	43
3.1.3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제시 양상	93
3.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인식 현황	54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제시 방안	51
4.1 초급 제시 방안	52
4.1.1 '-겠-'의 제시 방안	53

4.1.2 '-(으)ㄹ 것이다'의 제시 방안	45
4.1.3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제시 방안	65
4.1.4 혼합사용 상황	8
4.2 중급 제시 방안	61
V. 결론	78
참 고 문 헌	80
中文摘要	83



표 목 차

[표 1] 추측 표현 사용 빈도	2
[표 2] 齐沪扬의 중국 표준어(보통화/普通话)의 어기 체계	01
[표 3] 徐晶凝의 중국 표준어(보통화/普通话)의 어기 체계	51
[표 4]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	61
[표 5] '-겠-'과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0 2
[표 6] '-(으)ㄹ 것이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2 2
[표 7]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4 2
[표 8] 한국어 추측 표현들의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6 2
[표 9] 연세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9 2
[표 10] 재미있는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0 3
[표 11] 이화 한국어 '-겠-'에 대한 제시 상황	2 3
[표 12] 서울대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2 3
[표 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겠-'에 대한 제시 상황	3 3
[표 14] 연세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5 3
[표 15] 재미있는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6 3
[표 16] 서울대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7 3
[표 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제시 상황	8 3
[표 18] 연세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39
[표 19] 재미있는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40
[표 20] 이화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제시 상황	2 4
[표 21] 서울대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43
[표 2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제시 상황	44
[표 23] 설문조사 양식	4
[표 24] 조사 대상의 한국어 실력	84

[표 25] 중국인 학습자 인식하는 한·중 추측 표현 대응관계의 조사 결과	49
[표 26] 교재별 추측 표현에 관한 대화 주제	15
[표 27]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수업 모형	67



I.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모국어 사용이 익숙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 및 언어 환경이 그들의 모국과 많이 다르다. 문화적인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차이가 존재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모국어의 비교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을 위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교재나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 교수에서 문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법은 외우는 것만으로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문법이 여러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 중에도 유의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수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추측 표현에는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떻게 이를 잘 습득 시킬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제시되는 추측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일대일로 대응되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¹⁾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여러 어미를 통해 추측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어기 체계를 가지고 어기사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추측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추측 표현을 비교하고 실제 학습 환경 중 하나인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 나타난 추측 표현을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한국어 추측 표현 제시 방안

1) 한국어와 중국어에 일대일 대응되는 부분은 명사와 같은 품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측 표현이라고 할 때 한국어 추측 표현은 어미인데 중국어에서 어미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추측 표현과 중국어 추측 표현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기 힘들다.

을 구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 역시 추측 표현 중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미혜(2005)에서 제시하는 구어체 추측 사용 빈도를 참고해서 연구 대상을 선정했다. 빈도 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본고는 한국어의 추측 표현 중 빈도수 상위 3개 항목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느/(으)ㄹ 것 같다'를 중심으로 중국어의 추측 표현과 비교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겠다.

<표1> 추측 표현 사용 빈도²⁾

추측표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겠-	5914	37.99%
-(으)ㄹ 것이다	5404	34.71%
-(으)ㄹ 것 같다	2764	17.75%
-(으)ㄹ 모양이다	298	1.91%
합 계	14380	92.36%

또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자면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인 대조보다는 한국어와 중국어 추측 표현을 다대다³⁾ 예문 제시 위주로 비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재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내용과 함께 앞서 비교한 예문의 내용을 교육 방안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본고는 1장에서 연구 필요성,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대상을 밝히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추측 표현의 이론적 배경을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대조 기준을 모색하고 연구 대상인 '-겠

2) 이미혜(2005:85)에서 나온 비도 조사는 '21세기 세종 계획 연구·교육용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 1'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 <표1>은 조사의 일부만 인용했다.

3) 다대다라는 말은 여러 개 한국어 추측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개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조하는 것이다.

-'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조하겠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추측 표현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문제 제기를 시도하겠다. 5장에서는 앞에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시 방안을 구안할 것이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고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학에서 어떻게 추측 표현을 연구했는지를 알아보겠다. 그 다음에 대조 언어 분야에서 추측 표현을 어떻게 대조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추측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3.1 국어학에서의 연구

국어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추측 표현을 연구해 왔고 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 중 이윤진(2007), 김동욱(2000), 노지니(2004)를 통해서 추측 표현을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고찰하겠다. 이윤진(2007)은 의미·기능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에서, 김동욱(2000)은 화자의 주관적이나 객관적인 태도에서, 노지니(2004)는 의미 기능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윤진(2007)은 '- 것 같다'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법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 것 같다'와 관련된 문제를 2 가지를 제기했다. '- 것 같다'의 추측 기능으로 제시한 예문에서 완곡 기능을 포함하는 예문이 있어 학습자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 것 같다'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 것 같다'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2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 것 같다'의 의미·기능 제시 방안과 '- 것

같다'의 형태 제시 방안을 따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 것 같다'의 추측과 완곡 기능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 둘은 구분하여 교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 것 같다'를 선행요소에 따른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기준의 구분 기준의 모호성이 드러나 보완점을 찾아보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⁴⁾

김동욱(2000)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ㄴ 듯하다'와 '-ㄴ가 보다' 그리고 '-ㄴ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비슷한 추측 표현들을 화자 자신이 주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교 분석했다. 또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ㄴ 들판하다'는 화자 자신이 판단 주체인 것을 드러내는 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ㄴ가 보다', '-ㄴ 모양이다'는 단순히 정보전달과 근접하며 책임성이 있는 발화 상황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지니(2004)에서 통어적 문법소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 기능 단위라고 주장하면서 통어적 문법소의 의미 기능 기술 원리에 따라 추측을 나타내는 통어적 문법소들의 미묘한 의미 기능 차이를 분석하고 공손 기능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국어 추측 표현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을 다시 알아볼 수 있다.

1.3.2 대조언어학에서의 연구

추측 표현의 연구는 국어학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조언어학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두 언어를 대조하려면 대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조 기준을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송아명(2012)은 한국어 추측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와 '-ㄴ가/나 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인칭, 시제, 문장 종결형식, 판단의 근거, 완곡 의미

4) 이윤진(2007:329–330) 인용

총 5개면에서 중국어 어기(语气) 표현인 要, 会, 应该, 该, 好像, 似乎, 看样子, 看起来와 비교했다. 송아명(2012)에서는 추측 표현의 확신정도, 추측 표현의 구조 유사정도, 추측 표현의 의미 유사성을 근거하여 '-겠-', '-(으)ㄹ 것이다'와 '要, 會, 應該, 該', '-ㄴ가/나 보다'와 '看样子', '看起來', '好像', '似乎', '-ㄴ/는/ㄹ 것 같다'와 '好像', '似乎' 대응관계를 맺어서 대조 분석을 했다.

우교(2015)는 3가지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다'와 '-나 보다' 그리고 '-은/는/을 모양이다'에 대해서 주어 제약, 시제, 문장 유형, 부정 결합 양상, 완곡 의미, 판단의 근거, 확신의 정도 7가지 면에서 분석하여 중국어 어기사 要, 吧, 好像, 似乎, 大概, 也许, 估計, 看來, 看样子와 비교했다. 우교(2015:5)에서는 추측표현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은/는/을 것 같다'와 '-나 보다' 그리고 '-은/는/을 모양이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측 표현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겠-'과 '-을 것이다'는 의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추측 표현인 '-은/는/을 것 같다', '-나 보다', '-은/는/을 모양이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우교(2015:36–39)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책을 분석해서 연구 대상인 '-은/는/을 것 같다', '-나 보다', '-은/는/을 모양이다'가 문법책들에서 주로 어떤 중국어 추측 표현으로 많이 번역하는지를 정리하고 대응 관계를 맺어서 분석했다.

장경희(2017)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해서 '-을 것이다'와 '-을 것 같다' 그리고 '-겠-' 등 9개의 추측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한·중 추측 표현이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중 양태 범주와 양상을 제시하면서 추측 표현의 확실 정도, 화자가 사태를 추측할 때의 근거 명시 여부, 주관성과 객관성 3가지를 분석 기준으로 삼아 9가지의 한국어 추측 표현을 대조 분석을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추측 표현은 어미 위주로 표현되지만 중국어 추측 표현은 단어(어기사) 위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국어 추측 표현을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조할 때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다대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연구마다 선택하는 대조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준 연구의 대조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한국어와 중국어 추측 표현을 대조할 것이다.

1.3.3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

본 절에서는 교육 방안을 위주로 한국어교육에서 어떻게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연구들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유창(2011)에서 한국어 추측 의지 표현을 중국어와 대조했다. 또 중국인 학습자가 쓴 글을 오류 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적 문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교육 방안 요점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전형적인 5 단계로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선은희(2003)에서는 '-는 것 같다'와 '-나 보다' 그리고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의미 기능을 제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는 것 같다'와 '-나 보다' 그리고 '-는 모양이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활동을 제시했다.

김세령(2011)은 사용 빈도에 따라 '-겠-'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 그리고 '-(으)ㄹ 것(이다)' 등 6가지 추측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에 집중해서 한국어 학습자 추측 표현 사용 빈도, 양상, 오류를 분석했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표현 사용 빈도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재, 서강대학교 교재, 연세대학교 교재, 고려대학교 교재 4종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의 접근 방향 및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한국어 문법에 대한 교육 방안에서 활동 방안이나 전형적인 교육 방안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교재론 쪽에서의 연구들은 흔치 않다. 본고는 번역이 일관성 있는 예문을 통해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한다. 즉 교재에서 제시되는 예문은 문제점이 있으며 본고는 이 점에 대해 보완할 것이다.

II. 한·중 추측 표현 특성 및 대조

2.1 한·중 추측 표현 특성

2.1.1 한국어 추측 표현 특성⁵⁾

한국어 추측 표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추측 표현은 양태 범주에 속해 있다. 국어학에서 양태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범주화되었는데 장경희(1985:9)에서 양태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고영근(1986)에서 양태는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 영역과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 범주"라고 하였다. 김지은(1998)에서는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고 하였고, 이선웅(2001)에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⁶⁾ 박재연(2003)에 의하면 '화자의 태도'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양태의 기본 속성을 '화자의 주관적인 한정(qualification)'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였다.⁷⁾

국립국어원(2005)은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에 대한 감정, 판단, 느낌, 태도 등도 함께 전달한다. ... 결국 문장은 말하는 사람의 확신, 추측, 바람, 의도나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무, 능력 등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양태 또는 양태 서법이라고 한다."⁸⁾"

5) 한국어 추측 표현의 특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2』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6) 이순룡(2011:10) 재인용

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페이지 117-118 인용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페이지 283-285 인용

한국어 추측 표현은 다양하고 많지만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3가지에 대해서만 살필 것이다.

2.1.1.1 -겠-

'-겠-'은 의향이나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주로 화자의 의도, 의지를 나타내고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쓸 수 있다. 2, 3인칭인과 같이 쓰이는 경우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데 현재에 대한 추측과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나눌 수 있다. 주로 화자가 발화의 상황을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여 말할 때 쓴다.

- (1) ①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다.
② 상을 타서 기쁘시겠어요.

예문(1)처럼 ①은 내일에 대한 추측이며 ②는 지금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또 '-겠-'은 주어의 동작 완료를 화자가 추측할 수 있다.

- (2) 철수가 도착했겠습니다.

예문(2)는 '철수가 도착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철수가 도착한 것 같다'의 의미로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겠-'은 2, 3인칭 주어와 같이 쓰일 때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나눌 수 있다.

2.1.1.2 -(으)ㄹ 것이다

다음으로 '-(으)ㄹ 것이다'를 살필 것이다. '-(으)ㄹ 것이다'는 앞에 언급한

'-겠-'과 비슷하게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같이 쓸 수 없다. 예언이나 진리 등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한다. '-겠-'보다 '-(으)ㄹ 것이다'는 좀 더 객관적이다.

(3) ①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②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방송 일기 예보에서 예문(3)의 ②처럼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①처럼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②가 ①보다 화자가 좀 더 확신이 있어 보이며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으)ㄹ 것이다'는 '-겠-'과 많이 유사함으로 2, 3인칭과 같이 쓰일 때 추측을 나타낸다. 그리고 '-(으)ㄹ 것이다'는 좀 객관적인 추측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1.1.3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존명사 '-것'을 붙이고 명제를 명사절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시 상태동사 '같다'가 붙어 '같다'의 '가정적 동일성'의 의미를 사용해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한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일이나 현재의 일, 과거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쓴다.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 또는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낸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다른 추측 표현에 비해서 보다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2.1.2 중국어 추측 표현 특성

본 절에서는 중국어 추측 표현을 살펴 것이다. 한국어는 주로 어미로 추측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어는 어순이 한국어와 달라서 (종결)어미라는

개념이 없다. 하지만 다양한 어기 조동사(助动词), 어기부사(语气副词), 그리고 어기사(语气词)로 통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한다. 이런 어기 조동사, 어기부사와 어기사를 포함하는 체계를 어기 체계라고 한다. 어기라는 말은 말 할 때 감정, 정서, 생각, 태도 등을 나타내는 화자의 말투이다. 즉 화자는 이 어기 체계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추측 표현과 중국어의 추측 표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어기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어기 체계를 살펴볼 것인데 중국어 어기 체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류하고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齐沪扬(2002)와 徐晶凝(2000)을 대상으로 중국어의 어기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두 연구자의 어기 체계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 齐沪扬(2002)는 문장의 유형 및 문장을 드러나는 태도에 의해 분류했는데 이는 약한 한국어 종결법과 양태 범주와 큰 연관성을 보인다. 또 徐晶凝(2000)은 齐沪扬(2002)와 다르게 화자의 태도를 분류하고 있다. 두 어기 체계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齐沪扬(2002)에서 나온 중국어의 어기 체계를 살펴보겠다. 齐沪扬(2002)에서는 크게 기능어기와 의지어기로 다음 표와 같이 제시했다.

<표2> 齐沪扬의 중국 표준어(보통화/普通话)의 어기 체계⁹⁾

语气类别 어기 종류		例句 예문	形式标志 형식 표지
功能 语气 기능 어기	陈述语气 진술어기	肯定语气 긍정어기	他去看电影了。 그는 영화보러 갔어요.
		否定语气 부정어기	他不去看电影了。 그는 영화를 안 볼 거예요.
	疑问语气 의문어기	询问语气 묻는 어기	你去北京吗? 당신이 북경에 가요?
		反诘语气 반문어기	你难道不去北京吗? 당신이 북경에 가지 않아요?
	祈使语气 기사어기	请求语气 청구어기	您先吃饭吧! 당신 밥을 드시지요.
		命令语气 명령어기	把门关了! 문을 닫아라!

	感叹语气 감탄어기		太好了！ 참 좋아요!	여기사'了', '啊'
意志 语气 의지 어기	可能语气 기능어기	或然语气 개연어기	他可能去北京了。 그는 북경에 간 것 같아요.	여기 조동사사'可能' 여기부사'大概', '也许' 등
		必然语气 필연어기	他一定去北京了。 그는 북경에 갔어요.	여기부사'一定', '必然'
	能愿语气 능원어기	能力语气 능력어기	我能用左手写字。 저는 왼손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조동사'能', '会' 등
		意愿语气 의원어기	我想用左手写字。 저는 왼손으로 글을 쓰고 싶어요.	여기 조동사'愿意', '想' 등
	允许语气 허락어기	允许语气 허락어기	你可以来这里。 너 여기로 와도 돼.	여기 조동사'可以', '能够'
		必要语气 필요어기	你必须来这里。 너 여기에 와야 해.	여기 조동사'应该', '要' 여기부사'必须', '务必'
	料悟语气 각성어기	料定语气 예상어기	你果真来这里了。 너 과연 여기에 왔네.	여기부사'果然', '果真'
		领悟语气 깨닫는 어기	你原来来这里了。 너 여기에 왔구나.	여기부사'难怪', '原来', '怪不得' 등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눈 기능어기와 의지어기가 있다. 기능어기는 어떤 언어에서든 다 있는 문장의 유형을 근거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문장 유형을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5가지로 나누는데 중국어는 진술문, 의문문, 기사(祈使)문, 감탄문 4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국어에서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문과 청유를 나타내는 청유문을 합쳐 기사문으로 본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문장의 유형에 따라 진술어기, 의문어기, 기사어기 그리고 감탄어기 4가지의 어기로 중국어의 기본 어기 체계가 구성된다.

또한 다른 범주로는 화자의 어떤 감정이 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의지어기로도 나눈다. 이때는 화자의 감정에 따라 기능어기, 능원어기, 허락어기 그

9) 齐沪扬(2002:7)에서 중국어의 어기 체계에 대한 분류의 일부의 정리 및 번역

리고 각성어기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다시 개연어기, 필연어기, 능력어기, 의원어기, 허락어기, 필요어기, 예상어기, 깨닫는 어기 8가지로 나눴다. 이 8 가지 어기 중에서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개연어기이다.

개연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어기사는 개연어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 어기사가 하나 이상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겠-'과 같이 추측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 미래 등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다.

(4) ① 他应该过来的。

그는 와야 돼.

② 他应该过来了。

그는 온 것 같다.

제시한 것처럼 어기 조동사 '应该'는 예문(4)의 ①에서 해야 한다는 '필요 어기'로 나타나며 예문②에서는 온 것 같다는 개연어기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 단어로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있다. 바로 要, 会, 好像 등이다. 이들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들은 추측을 나타내지만 다른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해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5) ① 我要在家休息。

나는 집에서 쉴 거야.

② 要刮风了。

바람이 불겠다.

예문(5)와 같이 두 문장에 모두 要를 사용하였다. 要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이다. ①번 예문은 1인칭 주어인 문장이다. 보통 1인칭 주어인 문장은 추측을 나타낼 수 없다.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 묘를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다. 그래서 ①번의 要는 화자가 '집에서 쉬

고 싶으면 반드시 쉴 거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파서 집에서 쉴 예정이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즉 여기의 要가 화자의 억양이나 태도에 따라 의지나 미래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번의 要는 바람이 불지 모르나 날씨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예문의 주어를 보면 역시 1인칭이 아닌 3인칭이다. 그러므로 ①번 문장에 쓰이는 要는 단순한 조동사이고 ②번 문장에 쓰이는 要는 어기 조동사이다.

(6) ① 我会跳舞。

나는 춤출 수 있다.

② 我会认真学习。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③ 我一定会成为科学家。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④ 明天会冷。

내일 춥겠다.

예문(6)을 보면 역시 1인칭 주어인 문장이 많다. 4가지 문장은 다 會를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①번 문장의 會는 '할 수 있다'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의 會는 어떤 기술이 갖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 기능이다. ②번 문장의 會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다'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의 會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된다. ③번 문장은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고 반드시 될 거야'라는 의미로 여기의 會는 의지 기능을 하고 있다. 마지막 ④번 문장은 전형적인 추측을 나타나는 문장이다.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는 모르나 추울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7) ① (我)觉得韩语好像有点意思。

(제가) 한국어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② (我)肚子好像有点饿。

(제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③ 好像要下雨了。

비가 올 것 같아요.

예문(7)의 ①②③은 다 好像를 쓰이는 문장이다. 예문 ①과 같이 이 문장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교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문장이다. 화자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선생님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好像는 주관적이며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의 好像는 추측이 아닌 완곡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문②도 마찬가지이다. 예문②는 화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배고픈데 밥을 먹을래.'라는 의미를 함축하면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③번 예문은 추측을 나타나는 문장이다. 비가 올지 모르겠으나 화자가 주관적으로 볼 때 비가 올 것 같다는 추측을 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好像는 개연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사이지만 완곡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상으로 몇 가지 어기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시 들어와서 齐沪扬(2002)의 어기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齐沪扬(2002)에서 분류한 중국어 어기 체계는 두 가지의 범주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이 비교해 볼 때 기능어기는 한국어의 종결법과 유사하다. 한국어는 종결어미로 나누고 중국어는 어기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나눈다. 그리고 의지어기는 한국어의 양태 범주와 유사하다. 한국어는 많은 문법을 통해서 양태 의미를 나타내며 중국어는 어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齐沪扬(2002)의 어기 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徐晶凝(2000)에서의 중국어의 어기 체계를 제시하겠다. 徐晶凝(2000)에서의 중국어의 어기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했다.

<표3> 徐晶凝의 중국 표준어(보통화/普通话)의 어기 체계¹⁰⁾

基本语气系统 기본 어기 체계	表述语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어기	重说语气 강조하고 연결한 어기
		委婉语气 완곡한 어기
		诧异语气 의아한 어기
		庆幸惋惜语气 다행의 어기나 아쉬운 어기
	表意语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어기	单纯询问语气 단순 묻는 어기
		提醒注意语气 관심 갖게 하는 어기
		揣测语气 추측하는 어기
	表情语气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기	舒缓随便语气 온화한 어기
		不满责怪语气 불만의 어기나 비난하는 어기
		慷慨语气 강개한 어기

徐晶凝(2000)은 중국어 어기 체계를 태도, 의도나 정서 중에 어떤 것이 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분류했다. 齐沪扬(2002)의 중국어 어기 체계에 비하면 '의지어기'와 같이 양태 의미를 많이 고려한 것 같다. 그러나 齐沪扬(2002)의 중국어 어기 체계(의지어기)가 보다 좀 객관적이라고 하며 徐晶凝(2000)의 중국어 어기 체계는 좀 더 화자에 초점을 두어서 다소 화자 중심이라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 '기본 어기 체계'라는 말은 원문에서 나온 것인데 기본의 '기반, 보편적이다'의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이 어기 체계를 가지고 모든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다. 이 어기 체계에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어기'의 하위 범주인 '추측하는 어기'는 한국어의 추측 표현과 대응할 수 있다. 즉 중국어 추측 표현이 徐晶凝(2000)의 어기 체계에서는 '추측하는 어기'에 속해 있다.

10) 徐晶凝(2000:140)에서 제시된 어기 체계의 정리 및 번역

다시 중국어 어기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위에 제시한 것처럼 齐沪扬(2002)에서는 중국어 어기 체계를 기능 범주와 의지 범주 2가지로 나누는 반면에 徐晶凝(2000)은 화자의 태도, 의도, 정서에 따라 분류했다. 중국어 어기 체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분류했는데 여기는 그 중에서 좀 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시했다. 기준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어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조동사(助动词), 어기부사(语气副词), 어기사(语气词) 등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어 어기 체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본고의 연구 주제인 추측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齐沪扬(2002)과 徐晶凝(2000)에서 제시한 어기사들에 대해서 품사의 종류에 따라 정리했다. 그 중에 추측에 관한 것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겠다.

<표4>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¹¹⁾

어기 조동사	要, 会, 能, 应该(该, 应当), 得
어기부사	好像, 似乎, 仿佛, 也许, 或许, 兴许, 可能, 恐怕, 大概, 大约, 大略, 大致, 大体, 约, 光景
어기사	吧, 吗
기타	看上去, 看样子, 看起来, 说不定, 上下, 左右, 前后, 看来, 估计, 怀疑

표에서 제시한 어기 표현들이 혼자 쓰임으로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같이 문장에 쓰여서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어떤 어기 표현은 혼자만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추측의 의미가 약하며 다른 어기사와 같이 쓰임으로써 추측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8) ① 他要去首尔了。

그는 서울에 가겠다.

11) 여기에 제시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들은 齐沪扬(2002)과 徐晶凝(2000)에서 나온 어기사들에 일부이며 중국어 추측 표현의 일부이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② 他要去首尔了吧。

그는 서울에 가겠지?

③ 他去首尔了吧。

그는 서울에 갔지?

예문(8)의 ①은 단순한 추측이고 ②는 어기사 '吧'가 들어가 있어 ①보다 추측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문③은 '그가 서울에 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이때 확신이 들지 않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국인의 입장으로 볼 때 '要'만 있는 예문①이나 '吧'만 있는 예문③은 추측의 의미 약한데 '要'과 '吧'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문②는 예문①이나 ③보다 추측 의미가 강한 것이다.

(9) ① 他会来吗 ?

그는 올 거예요?

他应该来。

그는 와야 돼요. / 그는 올 것 같아요.

② 他会来吗 ?

그는 올 거예요?

他应该会来。

그는 올 것 같아요.

예문(9)의 ①②에서 제시하는 상황처럼 '그는 올 거예요?'라고 물어볼 때 '应该'만 들어가 있는 예문①은 '와야 돼요'와 '올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으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应该'와 '会'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문②는 '올 것 같아요'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应该'와 '会' 같이 쓰일 때보다 '应该'만 쓰이는 경우가 추측 의미가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应该'와 '会'는 모두 추측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기사이지만 '应该'만으로는 추측 의미 약하나 '应该'와 '会'를 같이 쓰면 추측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2.2 한·중 추측 표현 대조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중국어 추측 표현과 비교하겠다.

2.2.1 '-겠-' 및 要, 會

송아명(2012:40)에서는 추측 표현의 확신 정도에 따라 '-겠-'과 '-(으)ㄹ 것이다'를 '要, 會, 應該, 該'와 대조하고 있다.¹²⁾ 그러나 추측의 확신의 정도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겠-' 그리고 '-(으)ㄹ 것이다'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경향이 있어 같이 묶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중국어 추측 표현 '要, 會, 應該, 該'는 각자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 확신의 정도만 높다고 해서 대응 관계를 맺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겠-'에 대해서 전나영(1999)은 "-겠다"는 화자가 자신의 짐작에 대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¹³⁾.'라고 하면서 '-겠'은 확신 정도가 높은 추측이라고 하였다. 徐晓菁(2007)은 중국어 추측 어기사에 대해서 확실한 추측과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분류했다. 要, 會는 모두 확실한 추측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에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한국어 추측 표현 '-겠-'은 중국어 추측 표현 要, 會와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문을 통해서 대조하겠다.

(10) 비가 오겠다.

要下雨了。

예문(10)은 많이 들었던 '-겠-'의 추측 기능을 제시하는 문장이다. 화자가

12) 송아명(2012:40) 인용

13) 전나영(1999:176) 인용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하면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要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비가 올지'에 대해서 짐작해서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짐작 결과를 내리면서 보다 확신 정도가 강한 추측이다. 또 신화사전(新华字典) 14)에서 要는 '청구, 원하다'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므로 要는 좀 주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관성 있기 때문에 要는 보다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낸다. 이점은 '-겠-'이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하다. 또한 이런 주관성에서 출발하여 要를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이 짐작한 것에 대해서 확신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要를 쓰이는 문장은 확신이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나 '-겠-'을 쓰이는 문장을 要로 번역할 때 어색한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会로 번역하기가 더 적합하다.

(11) ① 내일 춥겠다.

明天要冷。 *

明天会冷。

② 내일 추워지겠다.

明天要变冷。

明天会变冷。

예문(11)의 ①을 보면 내일 날씨의 상태에 대한 추측이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要로 표현된 문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이 쓰지 않고 다소 어색하다. 이때는 要를 会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 예문②를 보면 ①과 같이 내일 날씨의 상태에 대한 추측인데 단지 변함이 있는 것이다. 이때는 要나 会로 번역해도 모두 문제없다. 그럼 会가 예문(9)과 같은 문장에서도 번역이 될지 한 번 살펴보겠다.

(12) 비가 오겠다.

会下雨。

14) 신화사전은 중국에서 권위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존재이다.

예문(12)는 숙로 번역할 때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의미로 주관적이고 확신이 있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추측 표현 '-겠-'을 가지고 중국어 추측 표현 要, 會과 대조했다. 대조한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겠-'과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한국어 추측 표현	사용하는 상황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겠-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할 때)	會
	동사와 같이 쓰일 때(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추측할 때)	要, 會
	변함이 발생할 때(변함으로 이루는 동사)	要, 會

2.2.2 '-(으)ㄹ 것이다' 및 要, 會

전나영(1999)에서 "-(으)ㄹ 것이다"는 짐작하는 내용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정도가 강하므로 발화 시간에 그 짐작의 진위 여부가 이미 밝혀진 경우에는 쓰이기 어렵다¹⁵⁾. 와 "-ㄹ 것 같다"는 짐작하는 내용이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정도의 약한 확신을 나타낸다¹⁶⁾. 라고 주장하면서 '-(으)ㄹ 것이다'는 보다 강한 추측이라고 하였다.

'-(으)ㄹ 것이다'는 '-겠-'과 많이 유사함으로 중국어 추측 표현 要, 會과 대응할 수 있다. 상황 별로 예문을 살펴보겠다.

(13) 이번 여름이 더울 것이다.

这个夏天会热。

15) 전나영(1999:175) 인용

16) 전나영(1999:175) 인용

这个夏天要热。 *

예문(13)는 1인칭 주어가 아닌 문장에서 형용사와 결합한 문장이다. 이때는 '-겠-'과 비슷하게 숙로만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뜻이 要는 '요구, 원하다'의 뜻이 있으므로 사물이나 사건의 형태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要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했을 경우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나 예문12)와 같은 문장에서는 쓸 수 있다.

(14) 이번 여름이 더워질 것이다.

这个夏天会变热。

这个夏天要变热。

예문(14)와 같이 '-(으)ㄹ 것이다'가 변함을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할 때 要, 会로 모두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미적 차이는 있을 것이다. 숙로 번역되는 문장은 객관적인 편이며 설득력이 보다 떨어진다. 반대로 要로 번역되는 문장은 要의 주관성으로 보다 주관적이며 청자에게 화자가 충분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추측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와 결합할 때 어떤지 살펴보겠다.

(15) ① 내일 철수가 우리 집에 올 것이다.

明天哲秀会去我家。

明天哲秀要去我家。

②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下午要下雨。

下午会下雨。

예문(15)의 ①은 '-(으)ㄹ 것이다'가 동사와 결합한 경우이다. 이때는 要, 会로 다 번역될 수 있다. 要로 번역된 문장은 행동의 주체인 철수가 우리 집

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며 숙로 번역된 문장은 철수라는 사람이 집주인의 요청 등 여러 원인으로 가게 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예문① 자체가 약한 확정된 일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약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예문②는 날씨에 대한 추측이고 강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②는 역시 要, 숙로 모두 번역하는데 要로 쓰이는 문장은 주관적이고 확신이 있으나 숙로 쓰이는 문장은 보다 객관적이고 좀 더 강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으)ㄹ 것이다'가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응했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으)ㄹ 것이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한국어 추측 표현	사용하는 상황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으)ㄹ 것이다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할 때)	会
	동사와 같이 쓰일 때(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추측할 때)	要, 会
	변함이 발생할 때(변함으로 이루는 동사)	要, 会

2.2.3 '-(으)ㄴ/는/(으)ㄹ 것 같다' 및 好像, 似乎

전나영(1999:173)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관형형 어미에 의존 명사 '것'이 연결되고 거기에 용언 '같다'가 연결되어 구성된 형태이며 인정 제약이나 시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짐작을 나타내는데 보다 확신의 정도가 떨어진 표현이며 1인칭과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1인칭 주어와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거나 공손을 표현하는 완곡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呂勇兵, 吕晓燕(2003)에서 어기부사 好像, 仿佛, 似乎에 대해서 논의했다.

好像是 화자가 여러 면에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득력이 있는 강한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仿佛는 두 가지의 사물을 연결을 시키는데 유사성이나 일치성을 더 추구한다고 하였고 仿佛는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仿佛는 '같다'라는 단어와 유사성을 보이며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고 있다. 似乎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似乎를 사용할 경우 화자가 더 냉정해 보인다고 하였다. 好像가 좀 더 주관적이고 강한 추측이라고 하면 似乎는 好像보다 좀 더 객관적이다.¹⁷⁾

송아명(2012:42–43)에서 "-ㄴ/는/ㄹ 것 같다"의 의미는 '같다'의 '유사성'으로 기초한다고 한다. 즉 현재 상황이 화자 기억 속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에 언어로 표현한다. '같다'의 의미는 중국어의 '像'과 유사하고 '-ㄴ/는/ㄹ 것 같다'는 중국어의 好像, 似乎로 표현하면 적절하다."라고 하고 있다.¹⁸⁾ '-ㄴ/는/ㄹ 것 같다'와 好像, 似乎가 대응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 말하는 뜻이 好像과 似乎는 용법이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 뚫어서 대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한국어 추측 표현인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중국어 추측 표현 好像, 似乎과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①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明天好像要下雨。

明天似乎要下雨。

② 그는 이번 대회에 참석할 것 같아요.

他好像要参加这次比赛。

他似乎要参加这次比赛。

예문(16)의 ①은 내일 비가 올지에 대한 추측인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好像, 似乎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好像로 쓰이는 경

17) 吕勇兵, 吕晓燕(2003:57–58) 인용

18) 송아명(2012:42–43) 인용

우는 종종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며 似乎로 쓰일 때는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다. 예문②도 비슷한 맥락으로 好像, 似乎로 다 번역할 수 있는데 다만 근거 충분 여부의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주어인 예문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미래 시제에서 논의했다. 그래서 시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7) ① 영미는 도착한 것 같다.

英美好像到了。

英美似乎到了。

②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다.

哲秀好像在学习。

哲秀似乎在学习。

예문(17)의 ①은 영미가 도착한 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다. 이미 완료한 동작에 대해서 추측할 때 好像, 似乎로 다 번역할 수 있다. 好像是 보다 좀 확신이 있으며 似乎是 보다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 예문②도 마찬가지이다. 好像로 번역되는 문장은 근거가 보다 충분하면 반대로 似乎是 막연히 추측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조했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7>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한국어 추측 표현	사용하는 상황	대응하는 중국어 추측 표현
- (으)ㄴ/는/(으)ㄹ 것 같다	1인칭 주어가 아닐 때, 시제 제약 없이	好像, 似乎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1인칭 주어인 경우를 빼고 나머진 상황에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好像, 似乎로 다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吕勇兵, 吕

曉燕(2003)에서 似乎는 선행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 기능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려고 할 때 好像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즉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일상에서의 사용처럼好像도 많이 쓰이고 여러 면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유사성을 보인다.



III.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 제시 및 학습자 인식 현황

3.1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표현 제시 양상

추측 표현에 대해서 교안을 구안하려면 학습 도구인 한국어 교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을 현재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분석할 교재는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재미 있는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6』,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1-6』, 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이다. 교재는 중국어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중국어판이 없을 경우는 한국어판을 살펴보았다. 이 5가지 교재에서 어떤 추측 표현을 다루고 있는지는 다음 표와 같다.

<표8> 한국어 추측 표현들의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급	과	문법	결합 품사	의미 설명
연세 대학 교 연세 한국 어	1	8-4	-을/ㄹ 거예요	동사, 형용사	주어가 3인칭일 때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9-2	-겠-2	동사, 형용사	화자의 상황이나 상태를 근거하여 추측할 때 사용한다.
		9-3	-을/ㄹ 것 같다	동사, 형용사	미래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할 때 사용한다.
고려 대학 교	1	11	-(으)ㄹ 것이다	동사, 형용사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재미 있는 한국 어	2	3	-(으)ㄹ 것 같다	동사, 형용사, '이다'동사	일에 대한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
		9	-겠-	동사, 형용사, '이다'동사	화자가 당시나 미래에 대해 추측할 때 사용한다.
이화 여자 대학 교 이화 한국 어	1	9	-(으)ㄹ 거예요	동사	미래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한다.
		12	-겠-	동사, 형용사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에 의해서 추측한다.
	2	7	-(으)ㄴ/는/(으)ㄹ 것 같다	동사, 형용사,'이 다'동사	과거, 현재, 미래의 동작을 추측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
서울 대학 교 서울 대 한국 어	2	4	-(으)ㄴ/는/인 것 같다	동사, 형용사,'이 다'동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
		5	-(으)ㄹ 거예요	동사, 형용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
		6	-(으)ㄴ 것 같다	동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과거 추측)
		7	-(으)ㄹ 것 같다	동사, 형용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미래 추측)
		8	-겠-	동사, 형용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
외국 어대 학교 외국	1	15	-(으)ㄹ 것이다	동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예문으로 미래의 대한 계획과 추측 2가지 기능을 같이 제시)

인을 위한 한국 어	2	7	- (으)ㄴ / 는 / (으)ㄹ 것 같다 -인 것 같다	동사, '이다'동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 (예문으로 추측과 완곡 기능을 같이 제시)
		11	-겠-	동사	따로 문법 설명이 없다.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는 서로 다르게 추측 표현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3가지 한국어 추측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 / 는 / (으)ㄹ 것 같다'를 모두 다루고 있다. 5가지 교재 중에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해당 과의 목표 문법에 대해서 따로 문법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 나머지 4가지 한국어 교재는 모두 문법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법 설명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제 예문 제시 상황을 통해서 이 5가지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한국어 추측 표현을 다루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5가지 교재 중에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6』 3가지는 중국어판이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과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은 문법 설명과 예문에서 모두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6』은 문법 설명은 중국어 번역 문장이 있지만 예문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1-6』, 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은 영어판이 있거나 한국어판만 있었다. 본 장에서는 5가지 교재에 대해서 항목 별로 분석하겠다.

3.1.1 '-겠-'의 제시 양상

3.1.1.1 연세 한국어

연세 한국어에서는 '-겠-'의 기능을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는 '-겠-'의 추측 기능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겠-'은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와 결합하

는 어미라고 하고 있다. 또 화자의 상황이나 상태를 근거하여 가정이나 추측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예문 제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9〉 연세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¹⁹⁾	
번호	예문
1	제목을 보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겠어요. 看了电影名，就知道这部电影会很有趣。
2	주말이라서 교통이 복잡하겠어요. 因为是周末，所以交通一定很拥挤。
3	일이 많아서 금방 끝내기가 힘들겠어요. 要做的事太多了，要在短时间之内完成肯定很困难。
4	피아노를 잘 치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어요. 你钢琴弹得这么好，一定会成为一名优秀的钢琴家。
5	하늘을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오겠어요. 看看天空，我觉得下午会下雨。

예문을 보면 각각의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쓰여 있다. 1, 5번 예문은 '-겠-'을 會로 번역하고 있다. 4번도 會로 번역하고 있는데 一定라는 부사를 붙여 '꼭 될 거야'라는 의미를 함축함으로 확신이 있는 추측을 나타낸다.

또 2번은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추측이 아닌 단정을 내리는 문장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一定가 있는데 정도 부사만 붙여서 추측을 나타내기는 어렵고 추측 어기사를 추가해야 한다. 앞장에 대조 결과를 따르면 '복잡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會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2번 예문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번역이 '주말이라서 교통이 복잡해요.'라는 것인데 會가 쓰여서 '因为是周末，所以交通一定很拥挤。'가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3번 예문도 2번과 비슷하게 '힘들겠어요.'를 '힘들어요.'로 번역하고

19) 『연세 한국어』 1급 9-2과

있어요. 그래서여기도 '힘들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会를 사용해서 '要做的事太多了, 要在短时间之内完成肯定很困难。'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1.1.2 재미있는 한국어

먼저 '-겠-'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교재에서 "-겠-'은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이며, 화자가 현재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겠-'은 과거의 완료한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가능한데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제시한 예문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연습 문제를 포함하여 총 8개가 있고 다음 표와 같다.

〈표10〉 재미있는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²⁰⁾	
번호	예문
1	와 맛있겠어요. 哇, <u>一定很好吃。</u>
2	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我下个月结婚。 나: 정말 좋겠어요. 축하해요. <u>真好。</u> 祝贺你。
3	가: 저 어제 명동에서 영화배우 배용준 씨를 봤어요. 나: 정말이요? 너무 좋았겠어요.
4	가: 비가 계속 오네요. 나: 내일은 더 춥겠어요.
5	가: 오늘 수미 씨하고 '여름 이야기' 보러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6	가: 시험에 아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정말 속상했겠어요.

7	가: 어제 친구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나: _____.
8	가: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가: _____.

먼저 1번 예문은 '-겠-'을 一定로 번역하고 있다. 一定是 '긍정, 단정, 반드시'와 같은 의미인데 추측이 아니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겠-'을 一定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앞장의 대조 결과에 따르면 會를 문장에 추가하여 一定会로 번역하는 것이 '-겠-'의 추측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一定会에서의 會는 추측을 나타내며 一定를 붙여 화자가 추측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정말 재미 있을 거야'라는 문장과 유사하다.

예문 2번은 '정말 좋겠어요.'를 真好로 번역하고 있다. 真好는 '정말 좋다'라는 뜻인데 추측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真好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예문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을 축하하는 것인데 보통 중국어에서 축하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측을 나타내려면 '一定会很好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3, 4, 5, 6번 예문이 있는데 4, 5번 예문은 전형적인 '-겠-'의 추측 기능이고 3, 6번 예문은 약한 문제점이 있다. 3, 6번 예문은 과거 완료한 것에 대한 추측인데 '-겠-'에 대한 문법 설명 부분에서는 앞 부분에서 말하는 뜻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 추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이 2 가지 예문을 빼서 '-겠-'이 과거 완료에 대한 추측 기능을 따로 제시하거나 문법 설명 부분에 더 추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3.1.1.3 이화 한국어

이화 한국어에서는 '-겠-'이 종결어미이고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를 근거하여 추측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품사와 결합 예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과거

20) 『재미있는 한국어』 2급 9과

를 나타내는 어미와 같이 쓸 수 있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문 및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11> 이화 한국어 '-겠-'에 대한 제시 상황 ²¹⁾		
예문	가: 마이클 씨, 제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나: 그래요? 정말 맛있겠어요.	
연습	다음 상황에서 친구의 상태를 추측해서 말해 보세요.	
보기	상황	추측
	어젯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다.	피곤하다/졸리다
보기	가: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나: 그럼 피곤하겠어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세요.	
1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걱정되다/마음이 아프다
2	어제 등산을 갔다	피곤하다/다리가 아프다
3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다	걱정되다/스트레스를 받다
4	한국 회사에 취직했다	기쁘다/기분이 좋다/행복하다
5	어제 친구를 2시간 동안 기다렸다	화가 났다/기분이 나빴다

이화 한국어는 문법 설명만 중국어로 제시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다.

3.1.1.4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에서의 '-겠-'의 예문 제시는 다음과 같다.

<표12> 서울대 한국어 '-겠-'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²²⁾	
번호	예문
1	가: 내일 친구들하고 부산으로 놀러 가요. 나: 와 좋겠어요.

21) 『이화 한국어』 1급 12파

2	스티븐 씨, 시험 잘 봐서 기분이 좋겠어요.
3	하늘이 어두워요. 곧 비가 오겠어요.
4	가: 어제 세 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나: 피곤했겠어요.

예문을 보면 '-겠-'이 동사, 형용사, 과거 어미와 결합하는 것을 모두 제시했다. 문법 설명이 없지만 이러한 예문을 통해 '-겠-'이 어떤 품사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3.1.1.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에서 '-(으)ㄹ 것이다'에 대한 제시는 다음과 같다.

<표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겠-'에 대한 제시 상황 ²³⁾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 배고프겠어요.
1	가: 요즘 숙제가 너무 많아요. 나: 힘들다
2	가: 여자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나: 슬프다
3	가: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자요. 나: 피곤하다
4	가: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나: 좋다
5	가: 내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할 거예요. 나: 재미있다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가: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나: 배고프겠어요. 빨리 먹어요.

22) 『서울대 한국어』 2급 8과

1	가: 내일 제주도에 갈 거예요. 나:
2	가: 3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나:
3	가: 내일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나:
4	가: 룸메이트가 자주 큰소리로 음악을 들어요. 나:

연습 문제를 보면 같은 형식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 청자가 위로나 공감 같은 말을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상황도 고려해서 같이 제시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것과 같이 제시한 예문의 번역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같은 교재에서도 문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으)ㄹ 것이다'의 제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1.2 '-(으)ㄹ 것이다'의 제시 양상

3.1.2.1 연세 한국어

다음으로 '-(으)ㄹ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연세 한국어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1, 2인칭이 쓰이는 문장에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미래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1인칭일 경우에는 맞지만 2인칭일 경우에는 화자가 주어인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다.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상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으)ㄹ 것이다'가 3인칭 쓰이는 문장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며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와 같이 쓴다고 하고 있다. 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급 11과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14> 연세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²⁴⁾	
번호	예문
1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쉴 거예요. 我这个周末要在家好好儿休息。
2	내일 몇 시에 오실 거예요? 你明天什么时候来？
3	저녁에 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我晚饭做烤肉吃。
4	이번 겨울은 좀 추울 거예요. 这个冬天会有点冷。
5	영수 씨가 요즘 좀 바쁠 거예요. 英秀这几天会有点忙。
6	기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火车会马上达到的。

1, 2, 3번 예문은 의지나 미래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하는 예이다. 4, 5, 6 번 예문은 추측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예이다. 예문 1은 要로 번역하고 있다. 예문 2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예문 3은 1인칭 주어인 경우이고 미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추측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대조 결과에 따르면 要나 会로 다 번역될 수 있는데 '我晚饭要/会做烤肉吃。'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문 4, 5, 6은 다 会로 번역하고 있다. 이점은 '-(으)ㄹ 것이다'가 要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해도 会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은 입증할 수 있다.

3.1.2.2 재미있는 한국어

24) 『연세 한국어』 1급 8-4과

'-(으)ㄹ 것이다'는 미래 계획을 말하는 것과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이 2가지의 기능은 재미있는 한국어에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분석하겠다.

'-(으)ㄹ 것이다'에 대한 설명이 역시 중국어로 돼 있다. '-(으)ㄹ 것이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이고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며, 부사와 같이 많이 쓴다. 또한 과거 완료에 대해서 추측할 때 '-았/었/였을 것이다'로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문을 보면 과거 완료까지 같이 제시하고 있어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는 '이다'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결합 상황에 대해서 이점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 예문 제시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15> 재미있는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²⁵⁾	
번호	예문
1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전화가 올 거예요. 请稍等, 可能马上就给您打电话了。
2	영호 씨 집에 전화 해 보세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3	수미 씨가 린다 씨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4	마이클 씨한테 전화 해 보세요. 아마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5	교코 씨는 _____.
6	_____ . 그러니까 내일 가세요.

예문을 보면 1번 예문만 중국어로 번역돼 있다. 중국어판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을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앞 부분에 따르면 '-(으)ㄹ 것이다'는 동사와 결합할 때 要, 会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번역한 것을 보면 要나 会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 可能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可能은 추측 어미이지만 '-(으)ㄹ 것이다'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要, 会를 문장에 추가하거나 可能을 빼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 따라

25) 『재미있는 한국어』 1급 11과

서 1번 예문을 '马上就要/会给您打电话了。'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또 5, 6번 예문을 보면 개방형 연습 문제인데 '-(으)ㄹ 것이다'를 익히고 사용하려면 상황까지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1.2.3 이화 한국어

다음으로 '-(으)ㄹ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이화 한국어는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만 제시하며 추측 기능에 대한 문법 제시는 없다. 아마도 말하기 등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화 한국어는 '-(으)ㄹ 것이다'가 미래 발생할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추측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겠다.

3.1.2.4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에서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는 다음과 같다.

<표16> 서울대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²⁶⁾	
번호	예문
1	가: 어머니가 안동을 좋아하실까요? 나: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2	이 신발이 민수 씨에게 작을 거예요.
3	오늘 나나 씨가 아마 학교에 못 올 거예요.
4	가: 수업이 끝났을까요? 나: 네, 끝났을 거예요.

'-(으)ㄹ 것이다'에 대한 제시에도 '-겠-'과 비슷하게 예문을 통해서 어떤

26) 『서울대 한국어』 2급 5과

품사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3.1.2.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에서 '-(으)ㄹ 것이다'에 대한 제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으)ㄹ 것이다'에 대한 제시 상황 ²⁷⁾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가: 지금 부산도 날씨가 추울까요? 나: 네, 아마 부산도 추울 거예요.
1	가: 이번 시험이 어려울까요? 나: 조금/어렵다
2	가: 이 옷에 무슨 신발이 잘 어울릴까요? 나: 운동화/어울리다
3	가: 룸메이트가 지금 집에 있어요? 나: 집/없다
4	가: 텅텅 씨는 지금 뭘 해요? 나: 친구/놀다
5	가: _____이/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나: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5년 후에 우리 반 친구들은 뭘 할까요? 아마 에릭 씨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거예요. 자르갈 씨는 아마 고향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 반 친구 중에서 누가 결혼을 했을까요? 텅텅 씨가 결혼을 했을 거예요.

연습 문제를 보면 다 상황을 고려해서 제시한다. 문법 설명이 없지만 연습 문제를 통해 '-(으)ㄹ 것이다'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또 '-(으)ㄹ 것이다'가 과거 어미와 같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제시해서 적절히 이해시키는 것 같다.

2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급 15파

지금까지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것과 같이 제시한 예문의 번역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 가지 교재에서도 문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제시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1.3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제시 양상

3.1.3.1 연세 한국어

다음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연세 한국어에서는 '-(으)ㄹ 것 같다'만을 제시하고 있다. '-(으)ㄹ 것 같다'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와 결합하고 미래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으)ㄴ 것 같다'와 '-는 것 같다'를 제시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18> 연세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²⁸⁾

번호	예문
1	너무 배가 고파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我好饿, <u>能</u> 大吃一顿。
2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看起来马上 <u>要</u> 下雨了。
3	미선 씨는 목소리가 예뻐서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아요. 美善的嗓子很好, 唱歌也 <u>会</u> 很好听。
4	이 음식은 너무 매울 것 같아요. 这个东西 <u>看</u> 起来很辣。
5	이번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这次考试 <u>好像</u> 会很难。

28) 『연세 한국어』 1급 9-3과

예문을 보면 5번만 好像로 번역하고 있다. 1번은 '많이 먹을 것 같아요.'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로 번역하고 있다. 전혀 추측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我好饿, 好像能大吃一顿。'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번은 看起来로 번역하고 있다. 看起来는 '보기에 ...'인데 2번 예문은 눈으로 보고 추측한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看起来로 번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好像马上要下雨了。'가 더 정확해 보인다. 3번은 会로 번역한 것 같은데 여기에 会는 조동사가 아닌 동사로 추측을 나타날 수 없으며 好像나 似乎를 첨가해야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또 4번은 2번과 비슷하게 看起来로 번역한데 看起来는 역시 눈으로 보고 추측하는 데에 많이 써서 好像, 似乎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다.

3.1.3.2 재미있는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재미있는 한국어에서는 '-(으)ㄹ 것 같다'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에서 한 번만 제시돼 있으며 '-(으)ㄴ 것 같다'와 '-는 것 같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으)ㄴ 것 같다'와 '-는 것 같다'를 같이 제시하면 교수 활동이 길어지고 어려울 것 같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으)ㄴ 것 같다'와 '-는 것 같다'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워 보인다. '-(으)ㄴ 것 같다'와 '-는 것 같다'를 같이 제시하게 되면 유용할 것이다. 또 '-(으)ㄹ 것 같다'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이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주관적 추측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또 과거의 일에 대해 추측할 때 '-았/었/였을 것 같다'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다. 예문 제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9> 재미있는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²⁹⁾

번호	예문
1	<p>가: 내일 비가 올까요? 明天会下雨吗？</p> <p>나: 제 생각에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我觉得可能会下。</p>

2	가: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 같아요. 济州島马上要下雨了。 나: 어제 제주도에는 비가 왔을 것 같아요. 昨天济州島好像下过雨。
3	가: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나: 글쎄요. 눈이 올 것 같아요.
4	가: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나: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요.
5	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나: 학생일 것 같아요.
6	가: 영진 씨가 어제 왜 안 왔을까요? 나: 글쎄요. 아파서 못 왔을 것 같아요.
7	가: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나: _____.
8	가: 선생님이 어제 뭐 했을까요? 나: _____.

예문을 보면 1, 2번 예문만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1번 예문은 '-(으)ㄹ 것 같다'를 可能会로 번역했다. 여기에 있는 会는 추측이 아닌 동사로서의 할 수 있다는 기능을 하고 있다. 可能은 추측을 나타내는데 역시 '-(으)ㄹ 것 같다'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可能을 好像나 似乎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 2번 예문은 역시 好像로 번역돼 있다. 似乎로 해도 크게 의미적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으)ㄹ 것 같다'에 대해 문법 설명에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동사로 제시되고 '명사+이다'의 경우는 한 가지가 있으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문은 연습 문제에 있다. 좀 더 다양한 품사 결합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3.1.3.3 이화 한국어

이화 한국어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를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각종 상황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동작을 추측하거나 현재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형태 변화에 대해 예시를 제시했다. 예문 및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20> 이화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제시 상황³⁰⁾

예문	가: 왜 마이클 씨는 안 왔어요? 나: 마이클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아주 바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지훈 교수님의 연구실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보기	가르치는 과목	역사	경제
	가: 이 사람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나: 책상에 역사에 대한 책이 많으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1	나이	30대	40대
2	결혼	결혼했다	결혼 안 했다
3	아이	있다	없다
4	취미	테니스를 치다	여행하다
5	잠시 후에 할 일	전화를 받다	책을 읽다

이화 한국어는 문법 설명만 중국어로 제시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다.

3.1.3.4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 3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재 상황의 추측을 나타내는 'A-(으)ㄴ 것 같다, V-는

30) 『이화 한국어』 2급 7과

것 같다, N인 것 같다'를 제시한 후에 이어지는 2과에서 과거 및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V-(으)ㄴ 것 같다'와 'A/V-(으)ㄹ 것 같다'를 제시했다. 예문 제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 서울대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예문 제시 상황 ³¹⁾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번호	예문
1	가: 준호는 지금 뭐 해요? 나: 공부하는 것 같아요.
2	유진 씨가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4	저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V-(으)ㄴ 것 같다	
1	가: 유진 씨, 스티븐 씨 지금 없어요? 나: 네, 집에 간 것 같아요.
2	수업이 끝난 것 같아요.
3	아키라 씨는 별씨 점심을 먹은 것 같아요.
A/V-(으)ㄹ 것 같다	
1	가: 나나 씨한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나: 책이 좋을 것 같아요.
2	이 옷은 좀 클 것 같아요.
3	내일 눈이 올 것 같아요.
4	이건 맵지 않아서 어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예문을 보면 각 과가 해당 문법에 대해서 품사 결합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제시했다. 또 발화 상황을 다르게 해서 더 잘 이해시키고 있는 것 같다.

서울대 한국어는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해당 문법

31) 『서울대 한국어』 2급 4, 6, 7과

을 쓰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3.1.3.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제시했다. 제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제시 상황 ³²⁾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시발이 좀 큰 것 같다.
1	아마 저분이 한국어 선생님이다
2	요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3	아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다
4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5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이 맛있다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가: 이 방을 좀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나: 가족이 4명인 것 같아요.
	그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가: 선생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아마 선생님은 책을 좋아할 것 같아요.
1	우리 반에서 친절한 친구
2	우리 반에서 제일 빨리 결혼할 친구
3	미래 친구들의 모습

중국어 번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5가지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연세 한국어, 재미 있는 한국어, 이화 한국어 3가지는 중국어판이 있어서 자세히 보았고 서울대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 분석 결과로는 중국어로 번역한 예문들의 번역이 일관성이 없었다. 같은 문법인데도 여러 중국어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었다. 또한 번역이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번역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3.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인식 현황

앞 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분석 및 문제 제기를 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어떻게 한국어 추측 표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것인데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해 대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문제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어떤 한국어 추측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한·중 추측 표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 대상인 3가지 문법을 배워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급 이상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의 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23> 설문조사 양식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한 설문조사

3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급 7파

- 유의사항: 1. 본 설문조사는 학문 목적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本问卷调查的对对象是以留学为目的中国人。
 2.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논문에만 반영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本问卷调查的内容仅作为论文的参考，不作其它用途。
 3. 본 설문조사 작성 시 한국어나 중국어로 가능하다.
 在填写本调查问卷时可以同时使用韩文或中文。

1. 인적 사항/个人事项

이름:	학교:	언어 연수 장소:
나이:	전공:	한국어 실력:

2.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세요.

来韩国多久了？期间做了什么，请进行简单的叙述。

보기: 온 지 6년이 된다. 언어 연수 1년, 대학 4년, 대학원 다니는 중이다.

3. 다음 한국어의 추측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까? 체크해 보세요.

会经常使用以下推测语法吗？在符合您情况的选项后面打勾。

추측 표현/推测语法

예문/例文

- ① -겠- 비가 오겠다. 要下雨了吧。
- ② -(으)ㄹ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要下雨了吧。
- ③ -(으)ㄴ/는/(으)ㄹ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好像要下雨了。

자주 사용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4. 3번 문항에서 나온 추측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对上一个问题中出现的推测语法的含义，进行简单的叙述。

보기: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었다.

'아/어/해서'는 문장을 연결하고 순서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5. 밑줄 친 부분을 잘 고려해서 다음 추측을 나타내는 한국어/중국어 문장을 번역해 보세요.

请仔细考虑划线部分后，翻译以下韩文(中文)表达推测意义的句子。

1) 가: 내일 비가 올까요?

나: 제 생각에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답:

2) 가: 비가 계속 오네요.

나: 내일은 더 춥겠어요.

답:

3) 내일 전국이 흐리겠다.

답:

4) 英秀这几天会有点忙。

답:

5) 看了电影名，就知道这部电影会很有趣。

답:

6) 这次考试好像会很难。

답:

7) 看他吃得那么急，(看上去)可能好久没吃东西了。

답:

6. 밑줄 친 부분을 잘 고려해서 다음 번역들이 적당한지 판단해 보세요. 적당하면 ○, 적당하지 않으면 ×를 표시하세요.

请结合划线部分，判断以下翻译的恰当性。认为恰当的画○，不恰当的画×。

1) 원문: 이번 겨울은 추울 거예요.

()

번역: 这个冬天会有点冷。

2) 원문: 주말이라서 교통이 복잡하겠어요.

()

번역: 因为是周末，所以交通一定很拥挤。

3) 원문: 이 음식은 너무 매울 것 같아요.

()

번역: 这个东西看起来很辣。

※ 문항5에서 1, 2는 중국어판 <재미있는 한국어> 문법의 예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책에 중국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3는 꼬꼬마 말뭉치에서 찾은 것이다. 4~7은 중국어판 <연세 한국어> 문법의 예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 한국어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6은 다 중국어판 <연세 한국어> 문법의 예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사의 목적은 3번 문항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한국어 추측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며 5번과 6번 문항을 통해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이 어떤 중국어 어기사와 어떻게 대응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습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4, 5, 6번 문항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 1, 2번 문항은 인적 사항 및 언어 연수와 유학 경력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왜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총 16명이다. 한국어 실력을 다음 표와 같다.

〈표24〉 조사 대상의 한국어 실력					
한국어 실력	6급	5급	4급	3급	어학원 ³³⁾
인원수/명	1	2	5	2	6

위와 같이 조사 대상들의 한국어 실력이 3급에서 6급까지 다양하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환학생이나 어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연구 대상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 -(으)ㄹ 것 같다' 3가지 문법에 대해서 모두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 다시 입증된다. 조사 대상들은 3가지 문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려움을 보였다. 조사할 때 아는 것만 쓰고 모른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3가지 문법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확실히 모르거나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설명한 것을 볼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추측 표현인 것은 모두

33) 어학원에 다니는 조사 대상은 총 6명인데 3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이다.

알고 있다. 그러나 '-겠-',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는 추측 표현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조사 대상자는 이 2가지 문법에 대해서 미래 계획을 말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문항 5, 6은 조사 대상들이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인식을 알고자 한 문항인데 다음 표로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정리하였다.

<표25> 중국인 학습자 인식하는 한·중 추측 표현 대응관계의 조사 결과

대상	-겠-	-_(으)ㄹ 것이다	-_(으)ㄴ/는/(으)ㄹ 것 같다
A	(应该)会	会	好像, 会
B	会, 好像	会	可能, 会, 看起来
C	会	会	可能, 好像, 看起来
D	会	会	会, 好像
E		会	可能, 会, 看起来
F	(应该)会	会	(应该)会, 好像, 看上去
G	会, 一定		会, 好像
H	会, 一定		可能, 好像
I	要, 一定	会	要, 会, 好像, 看上去, 看起来
J	应该, 会	会	好像, 会, 看起来
K	会, 好像, 一定		好像, 会
L	会, 一定	会	好像, 看起来
M	会	会	好像, 会
N	会	会	好像, 看起来
O	会	会	好像, 看起来
P	(应该)会, 可能, 一定	会	好像, 会, 看上去, 看起来

보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들은 한·중 추측 표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외로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 会

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사 대상들이 숙어 대응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추측 표현이 중국어 어기 표현과 1대1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학습자는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며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중 추측 표현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 방안을 구성한다면 추측 표현을 교육하는 데에 또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어감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제시 방안

3장에서 지금 사용 중인 교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어판 교재에서 제시한 예문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장에서는 이점에 대해 보완할 것이다. 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재에서 제시한 문장에서 유래된다고 보고 있다. 잘 인식해야 한국어 추측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추측 표현 제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상황에 맞게 표현을 사용하려면 각 상황에 맞는 표현을 알아야 한다. 언어는 복잡한 것이며 설명만으로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추측 표현을 쓰는지를 알기 위한 제일 직접적인 방법은 상황별 예문 제시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3가지 문법을 상황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 형식은 대화문이다. 대화문을 제시한 후 중국어로 번역되는 문장을 제시한다. 제시할 대화문을 통해 교재에 있는 문제점, 즉 번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완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용 중인 교재들이 특히 중국어판이 있는 교재들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교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고자 한다.

상황별 대화문을 제시하려면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인지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기를 위해 먼저 교재에서 추측 표현에 대해 어떤 주제를 선택한지를 살필 것이다.

<표26> 교재별 추측 표현에 관한 대화 주제			
	-겠-	- (으)ㄹ 것이다	- (으)ㄴ/는/(으)ㄹ 것 같다
연세 한국어	날씨와 계절	전화	날씨와 계절

재미있는 한국어	기분·감정	전화	날씨
이화 한국어	날씨		물건 사기
서울대 한국어	정말 속상하겠어요.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옷이 좀 큰 것 같아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맛있는 것 같아요.

위의 표를 보면 각 교재들이 완전히 같은 주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대체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겠-'에 관한 대화문은 날씨를 주제로 하는 것이 많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도 날씨에 관한 대화 주제가 많았다. 또 '-(으)ㄹ 것이다'에 관한 대화 주제는 주로 전화로 이루어졌다. 이 주제들이 이 3가지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대표성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측 표현을 익히려면 하나의 주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본장에서 제시할 대화문들의 주제는 교재에 있는 주제들을 참조하여³⁴⁾ 연구 대상인 3가지 추측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다 선택하겠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초급 문법이기 때문에 초급 수준에 사용이 가능한 대화문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초급 연수 과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초급의 수업만으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문법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초급에서 기반을 세우고 중급에서 다시 교수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교수가 수월해질 수 있다.

4.1 초급 제시 방안

먼저 초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시 방안을 보도록 하겠다. 주제별로 대화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대화문의 주제는 재미있는 한국어 1, 2급을 참조했다. 교재들이 과마다 주제를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나오는 주제는 교재들이

34) 참조하는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 1급과 2급이다.

다 비슷해서 재미있는 한국어를 참조 기준으로 했다. 대화문은 교재에서 제시하는 주제들을 몇 가지를 뽑아서 만들었다. 주로 전형적인 상황이나 많이 사용되는 주제를 선택했다.

4.1.1 '-겠-'의 제시 방안

날씨

가: 요즘 많이 추워요.

나: 맞아요. 우리 고향은 따뜻해서 많이 힘들어요.

가: 많이 힘들겠어요. 패딩을 입어요.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울 거예요.

가: 最近好冷啊。

나: 是啊。我的家乡比较温暖，所以过的很辛苦。

가: 会很不适应吧。穿个羽绒服吧。这个冬天会很冷。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날씨를 주제로 만든 것이다. 여기는 '-겠-'이 1번 나왔다. '힘들겠어요.'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내며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라서 숙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분

가: 저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나: 정말 좋겠어요. 축하해요.

가: 고마워요.

나: 준비할 것이 많아서 많이 바쁘겠어요.

가: 맞아요. 마이클 씨, 결혼식 때 꼭 와요.

나: 그래요.

가: 我下个月要结婚了。

나: 真好。祝贺你。

가: 谢谢。

나: 要准备的很多一定会很忙吧。

가: 是啊。迈克一定要来结婚典礼啊。

나: 好的。

위는 주제 기분인 대화문이다. 여기에서는 '-겠-'이 2번 나왔다. 첫 번째는 '정말 좋겠어요.'라는 것인데 여기는 真好로 번역하고 있다. '좋다'는 형용사인데 2장에 대조 결과를 따르면 會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여기는 會로 번역하지 않는 예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좋다'라는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이런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좋다는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 '좋다'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會와 같이 번역하기는 어색하다. 이때는 중국어에서 真好, 太好了(정말 좋다)로 말한다. 또한 要, 會로 번역하려면 '좋다'의 구체적인 의미와 같이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는 會로 번역하면 会很幸福吧(행복하겠어요.)와 같은 형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4.1.2 '-(으)ㄹ 것이다'의 제시 방안

물건사기

가: 갈비 어떻게 파요?

나: 500g 당 8000원이요.

가: 갈비탕을 만들려고 해요. 식구 4명인데 ...

나: 1kg 정도 사시면 될 거예요.

가: 네, 1kg 정도 주세요.

나: 이것이 1kg 좀 넘을 거예요. 괜찮아요?

가: 네, 다 주세요.

가: 排骨怎么卖？

나: 每500g8000元。

가: 想做个排骨汤，有四个人……

나: 买1千克左右会差不多。

가: 好的，给我一千克。

나: 会超过一千克一点。可以吗？

가: 可以的，都给我吧。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물건을 살 때 흔히 이루는 대화 상황이다. 여기에 '-(으)ㄹ 것이다' 2번 나왔다. '1kg 정도 사시면 될 거예요.'와 '이것이 1kg 좀 넘을 거예요.'이다. '되다'는 사용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으)ㄹ 것이다'는 会로 번역했다. 두 번째는 동사와 결합해서 要, 会로 다 되는데 여기는 会로 번역했다.

미용실

가: 파마하려고 왔어요.

나: 어떤 헤어스타일로 해 드릴까요?

가: 저 생각이 없는데 어떤 스타일과 어울릴까요?

나: 요즘 단연 중간머리 레이어드컷은 정말 인기예요. 고객님과 어울릴 거예요.

가: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가: 我想烫个头发。

나: 想要个什么样的发型呢？

가: 我也没什么想法，什么发型比较适合我？

나: 最近中分人气很高。会很适合你的。

가: 好的，就给我做那个吧。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미용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여기는 '-(으)ㄹ 것이다' 1번만 나왔다. '고객님과 어울릴 거예요.'가 있다. 여기는 '어울리다'가 동사이지만 会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한국어 품사 분류의 보

호성에서 찾을 수 있다.

4.1.3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제시 방안

선물

가: 내일 마이클 씨 생일이에요. 뭐로 선물할까요?

나: 마이클 씨가 농구를 잘해요. 농구로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가: 근데 마이클 씨는 음악듣기도 좋아해서 이어폰으로 선물하는 것이 어때요?

나: 이어폰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가: 그래요. 같이 선물 사러 가요.

가: 明天是迈克的生日。拿什么作为礼物好呢？

나: 迈克篮球打得很好，送篮球的话好像不错。

가: 但是迈克也喜欢听音乐，送耳机怎么样？

나: 耳机似乎也不错。

가: 就这样。我们一起去买礼物。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좋아할 것 같아요.'가 2번 나왔다.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好像, 似乎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好像로 번역하고 두 번째는 似乎로 번역했다.

소문

가: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민민 씨와 사귀는 것 같아요.

나: 정말이에요?

가: 둘이 항상 같이 커피숍에 있어요.

나: 아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민민 씨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가: 그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 这学期新来的老师好像在和明明交往。

나: 真的?

가: 两个人经常一起在咖啡店。

나: 也许是学习吧。明明不是很认真学习嘛。

가: 这样啊。可能是这样。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3번 나왔다. '사귀는 것 같아요.'는 好像, 似乎로 번역하기 문제없다. 그러나 '아마 공부하는 것 같아요.'와 '아마 그런 것 같아요.'는 부사 '아마'가 '-(으)ㄴ/는/(으)ㄹ 것 같다'보다 선행하고 있다. 이럴 때 중국어로 번역하면 부사인 '아마'의 의미만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의미가 비슷한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쓰게 되면 어의(語義)중복이 되어 비문이 된다. 예로 하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好像, 似乎로 번역할 수 있는데 好像과 似乎를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추측을 나타낼 때의 의미는 중국어로 했을 때 '아마'와 비슷하다. 또한 '아마'는 부사로서 추측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아마'의 의미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사전³⁵⁾에 따라 也许, 可能로 번역했다. 즉 여기는 '아마'를 번역하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생략했다.

취미

가: 마이클 씨, 뭘 해요?

나: 저 소설책을 읽고 있어요.

가: 책 읽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네, 시간이 있으면 소설책을 읽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좋아요.

가: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나: 튼튼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가: 迈克, 在干吗呢?

35) 네이버 사전에 따른 것이다.

나: 我在看小说。

가: 你好像很喜欢看书。

나: 是的，有时间的时候我就会看小说。还可以释放压力。

가: 我喜欢打篮球。

나: 你这么结实，似乎篮球打得很好。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취미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2번 나왔다. 여기도 예외 없이 好像, 似乎로 번역될 수 있다.

교통

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늦게 일어나서 늦을 거예요.

나: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 광화문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 거기는 멀지 않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10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가: 그래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가: 今天和朋友有个约会，但是起晚了要迟到了。

나: 几点在哪里见面啊？

가: 10点在光化门。

나: 那里不远啊。现在还有时间，打的的话，十点前似乎能到。

가: 真的吗？那我先走了。

위는 교통과 관련 있는 이야기이다. 이 대화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1번 나왔다. '도착할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내며 好像, 似乎로 번역할 수 있다.

4.1.4 혼합사용 상황

본 절은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대화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중 한두 가지를 배우고 나서 다음 표현을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문이다. 또한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 비교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행

가: 내일부터 연휴인데 뭘 할 거예요?

나: 저는 여행갈 거예요.

가: 좋겠네요. 어디에 갈 계획이 있어요?

나: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계속 가고 싶었어요.

가: 재미있을 거예요. 잘 다녀와요.

가: 明天开始就是连休了，准备干什么？

나: 我要去旅游。

가: 真好。有计划去哪里吗？

나: 准备去越南。一直都想去。

가: 会很有意思的。一路顺风。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저는 여행갈 거예요.'와 '재미있을 거예요.'가 나왔다. 첫 번째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추측을 나타낸다. 그래서 두 번째 '-(으)ㄹ 것이다'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상황이어서 會로 번역했다.

여가활동

가: 마이클 씨, 이번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나: 글쎄요. 아마 학원을 다닐 거예요.

가: 그래요? 저는 가족이랑 한국에서 여행할 거예요.

나: 가족들이 올 거라서 정말 좋겠어요.

가: 迈克, 这次假期准备做什么?

나: 就是说啊。也许会去补习班。

가: 是嘛。我会和家人一起在韩国旅行。

나: 家里人要来真好。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여가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아마 학원을 다닐 거예요.'라는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는 1인칭 주어이지만 '아마'라는 부사를 붙여서 추측을 나타낸다. 또 여기도 '아마'의 의미만 살릴 수 있다. 또 '좋겠어요.'가 나와 있다.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의 '-겠-'은 보통 술로 번역하지 않고 ' 좋겠다'를 真好로 번역한다. 만약 술로 번역하려면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다음 대화문도 마찬가지다.

전화

가: 여보세요.

나: 여보세요. 마이클 씨예요?

가: 네, 린다 씨예요?

나: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등산하려고 해요.

가: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나: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같이 가요.

가: 喂。

나: 喂, 是迈克吗?

가: 是的, 是玲达吗?

나: 是的。或许这周末有时间吗? 想要一起去登山。

가: 一定会很有意思。但是我这周末好像不行。

나: 真可惜, 那么下次一起吧。

주제 여가활동인 대화문에서 '좋겠다'를 真好(정말 좋다)로 번역했다. 여기는 단순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숙로 번역하면서 더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인 의미로 번역했다. 그래서 여기는 会很有意思(재미있겠다)로 번역했다.

인사

가: 오래만이에요.

나: 반갑네요. 요즘 뭘 하고 있어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가: 회사 일이 많아서 바빠요.

나: 정말 힘들겠어요. 일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 좀 챙기세요.

가: 그래요. 고마워요.

가: 好久不见。

나: 见到你真开心。最近在干什么？好像很疲劳。

가: 公司事情很多，很忙。

나: 一定会很辛苦吧。別光做事，注意身体健康。

가: 好的，谢谢。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인사와 관련 있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와 '정말 힘들겠어요.'가 나와 있다. 전자는 예외 없이 好像, 似乎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다. 후자는 형용사와 결합해서 숙로 번역했다.

감정

가: 마이클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 여자 친구랑 싸웠어요.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했어요.

가: 많이 슬프겠어요. 전화해 보세요. 먼저 사과하면 화해할 거예요.

나: 네, 그렇게 하려고요.

가: 迈克，有什么事吗？脸色好像不太好。

나: 和女朋友吵架了。有一天没联系了。

가: 一定会很难过吧。打个电话试试。先道歉的话应该会和解的。

나: 是的，正准备这么做呢。

위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나온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好像,似乎로 번역할 수 있다. '-겠-'은 형용사와 결합해서 會로 번역했다. '-(으)ㄹ 것이다'는 '화해하다'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화해하다'는 동사이지만 '하다'가 생산성이 좋은 표현이며 명사와 같이 쓰여 동사를 만드는데 여기는 會로 번역했다. 예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직장

가: 마이클 씨, 요즘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나: 네, 신입이라 일이 많아요.

가: 많이 피곤하겠어요. 직장 생활은 어때요?

나: 업무를 적응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 그래요. 마이클 씨 잘하니까 좋아질 거예요.

가: 迈克，听说你最近找工作了。

나: 是啊，作为新员工，事情很多。

가: 一定会很累吧。工作怎么样？

나: 适应工作好像还需要一点时间。

가: 是吗。迈克一向很厉害，一定会变好的。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겠-'은 형용사와 결합해서 會로 번역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도 나왔는데 여기는 완곡 의미라서 잘 구분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한국 생활

가: 마이클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나: 아직 적응하지 못 한 것이 많아요.

가: 많이 힘들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나: 음식인 것 같아요. 미국 음식과 많이 달라요.
가: 그렇군요. 지금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할 거예요.

가: 迈克，在韩国的生活怎么样？
나: 还是有很多不适应的地方。
가: 一定会很累吧。哪方面最难适应呢？
나: 好像是吃的。韩国吃的和美国吃的太不一样了。
가: 这样啊。虽然现在不太适应，但是过段时间就会习惯的。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한국 생활과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의 '-(으)ㄹ 것 이다'는 형용사와 결합해서 서로 변역했다. 또 '음식인 것 같아요.'가 나왔는데 여기도 완곡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약속

가: 오늘 길이 왜 이렇게 막혀요.
나: 글쎄요.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 하필이면 ... 마이클 씨 지금 도착했겠죠.
나: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것 같아요.
가: 거의 다 왔으니까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나: 그래요. 우리 내려서 걸어가요.

가: 今天为什么道路这么堵。
나: 就是说啊。好像在搞什么活动。
가: 为何偏偏就…… 迈克应该到了吧？
나: 已经过了约定时间了，好像到了吧。
가: 基本上快到了，走的话说不定会快一点。
나: 是吗。我们下车走过去吧。

위에 제시한 대화문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好像, 似乎로 번역할 수 있다. '-(으)ㄹ 것이다'는 형용사와 결합해서 숙로 번역했다. 또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데 과거 시제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吧로 번역했다.

자금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 추측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한 대화문들이 일관성이 있게 번역하고 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대화문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잘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화문을 교재에 반영한다면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상황에 맞게 한국어 추측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 중급 제시 방안

앞 절에서 초급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급까지 이어서 심화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절은 더 깊이 있는 중급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급 학습자들은 이미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배웠다. 또한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3가지 문법이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씩 제시하는 것보다 같이 제시하면서 비교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습자들이 초급 수업 시간에 하나씩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배웠는데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용법이 유사한 문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식 수업 아닌 특별 수업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 절은 특별 수업으로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으로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차이점을 밝히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본 절의 특별 수업은 3교시로 나눌 것이다. 첫 시간에는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 할 것이다. 또한 초급 시간에 못 배운 것을 보완하기도 한다. 2교시에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익히기 위해 상황 별 대화문을 많이 제시하면서 낭독, 연극 등 같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 교시에는 연습을 할 것이다. 유형이 서로 다른 문항을 제공하고 테스트하면서 오류를 발견한 후 수정 및 피드백을 줄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 인상 깊을 것이며 상황에 맞게 이 3가지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시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의 교수안으로 예를 들겠다.

(1) 1 교시

이 시간에서는 복습하기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초급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지식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관한 문장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처음 배운 문법과 같이 교수하지 않아도 문법 설명, 형태 제시 등 요소는 있어야 한다. 또 본고에서는 번역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관한 지식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초급 시간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지 못한 학습자에게는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2 교시

1 교시에서 자세하게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에 대해서 복습했다. 이제 2교시에서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 간 차이를 밝힐 것이다. 이때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가 어떤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응하는지 또한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것이다.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사용하기만 할 때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원을 알게 되면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보다 쉽게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가 어떤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이유나 기준까지 알게 되면 학습자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에 대한 지식도 기억 속에 깊게 저장하게 될 것이다.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할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상황별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번역을 사용한다. 또 예문을 읽는 말하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화문에 대해서 짹을 지어서 연극을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흥미도 느끼면서 더 심도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3) 3 교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앞에 있는 두 교시는 거의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3교시는 연습 위주로 할 것이다. 연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발견한 오류에 대해서 교정하고 피드백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많은 유형의 연습들을 실시해야 한다.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이다'는 용도도 많고 많은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그만큼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연습 문제를 제공하면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쉽게 오류를 범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알아야 더 초점을 두고 더 효율성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항은 문장으로 제시

하는 것보다 대화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단일한 문장은 문맥이 없어서 사용 가능한 표현이 많을 수 있는데 대화문은 문장의 맥락을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교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하나의 예로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표27>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수업 모형	
교수 대상	중국인 학습자 / 중급 / 특히 외국에서 공부
수업목표	'-겠-',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간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수업내용	'-겠-'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준비물	PPT, 유인물
1 교시	<p>교수자: 오늘 우리 특별 수업 할 거예요. 주제는 추측 문법이에요. 질문! 여러분 아는 추측에 관한 문법이 뭐가 있어요?</p> <p>학습자: -겠/-(-(으)ㄹ 것 같다/ 모양이다 등 ...</p> <p>교수자: 네, 맞아요. 오늘은 우리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3가지 문법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p> <p>학습자: ...</p> <p>교수자: 네, 잘했어요. 여러분 말한 것은 다 맞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p> <p>학습자: 네.</p>

'-겠-' (문법 설명) 생략 ...

(형태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

-겠-	동사 + 겠	받침 여부에 상관없이 '겠'을 쓴다.
	형용사 + 겠	
	명사 + 이다 + 겠	
	았/었/였 + 겠	

(예문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예문

- 1 가: 비가 계속 오네요.
 一直在下雨。
 나: 내일 더 춥겠어요. 36)
 明天会更冷吧。
- 2 가: 시험에 아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会的考试题目几乎没有。明明认真学习了.....。
 나: 정말 속상했겠어요. 37)
 一定会很伤心吧。
- 3 가: 어제 세 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昨天开了一个三小时的会。
 나: 피곤했겠어요. 38)
 一定会很累吧。
- 4 하늘이 어두워요. 곧 비가 오겠어요. 39)
 天暗暗的。快要下雨了。
- 5 주말이라서 교통이 복잡하겠어요. 40)
 因为是周末，交通一定会很拥挤吧。
- 6 일이 많아서 금방 끝내기가 힘들겠어요. 41)
 事情很多，短时间内完成会很苦难。

(여기에서는 예문을 몇 가지만 제시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으)ㄹ 것이다' (문법 설명) 생략 ...

(형태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

-(으)ㄹ 것이다	동사 + (으)ㄹ 것이다	받침 있으면 '을', 받침 없으면 'ㄹ'를 쓴다.
	형용사 + (으)ㄹ 것이다	
	명사 + 이다 + (으)ㄹ 것이다	'명사 + 일 것이다'로 쓴다.
	았/었/였 + (으)ㄹ 것이다	'을 것이다'로 쓴다.

(예문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예문

- 1 이번 겨울은 좀 추울 거예요. 42)
这个冬天会有点冷。
- 2 영수 씨가 요즘 좀 바쁠 거예요. 43)
英秀最近会有点忙。
- 3 수미 씨가 린다 씨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44)
秀美应该已经和玲达说了吧。
- 4 잠까만 기다리세요. 곧 전화가 올 거예요. 45)
稍微等一下。马上就会来电话的。
- 5 가: 지금 부산도 날씨가 추울까요?
釜山现在也冷吗?
나: 네, 아마 부산도 추울 거예요. 46)
嗯, 釜山也会是冷的吧。
- 6 가: 수업이 끝났을까요?
下课了吗?
나: 네, 끝났을 거예요. 47)
嗯, 应该下课了。

(여기에서는 예문을 몇 가지만 제시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으)ㄹ 것이다' (문법 설명) 생략 ...

(형태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

-(으)ㄴ/는/(으)ㄹ 것 같다				
받침 ○ 받침×	동사	형용사	이다	
과거	ㄴ	은		
현재	는	ㄴ	은	ㄴ(인)
미래	ㄹ	을	ㄹ	ㄹ(일)

(예문 제시 및 설명) 설명 생략

예문

- 1 가: 영진 씨가 어제 왜 안 왔을까요?
英真昨天为什么没来?
나: 글쎄요. 아파서 못 왔을 것 같아요. 48)
就是说啊，好像是生病了。
- 2 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那个人是干什么的？
나: 학생일 것 같아요. 49)
好像是学生。
- 3 너무 배가 고파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50)
肚子好饿啊，似乎能吃很多。
- 4 이번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51)
这次考试似乎会很难。
- 5 가: 유진 씨, 스티븐 씨 지금 없어요?
佑真，史蒂文现在不在吗？
나: 네, 집에 간 것 같아요. 52)
是的，好像回家了。
- 6 가: 구두 사이즈가 어때요?

皮鞋大小怎么样?
나: 좀 작은 것 같아요. 53)
似乎有点小。

(여기에서는 예문을 몇 가지만 제시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교수자: 여러분 잘 했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가지 문법의 차이점을 알아볼 거예요. 게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교시

교수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예요?

학습자: 추측 문법의 차이점 ...

교수자: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먼저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 / -(으)ㄹ 것 같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습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나요?

학습자: 네.

(차이점 대한 설명) 설명 생략 ...

(예문을 통해 설명)

예문

가: 안영하세요. 저 배가 많이 아파요. 설사도 하고요. 소화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소화제보다 설사약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가: 你好，我肚子很痛，还拉肚子。好像要吃点消化药。

나: 相比于吃消化剂，止泻药会更有效果。

교수자: 예문은 약국에서 발생한 대화입니다. 손님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를 말했는데 여기는 추측이 아닌 완곡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의사는 '소화제가 더 효과적일 거예요.'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왜 '-(으)ㄹ 것이다'를 사용했을까요?

학습자: 몰라요.

교수자: '-(으)ㄹ 것이다'는 '-겠-'보다 더 객관적입니다. 우리 평소 진리를 말할 때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객관적이라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소화제를 사라는 권의를 소님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학습자: 네.

교수자: 그리고 여기 왜 '-(으)ㄹ 것 같다'를 안 사용하냐면 '-(으)ㄹ 것 같다'는 확신이 없는 추측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예문 및 설명을 하나만 제시했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교수자: 좋아요. 다음은 이 3가지 추측 표현과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추측 표현을 알려줄 거예요.

(본고 2장에서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 설명 생략 ...

교수자: 아주 잘 했어요. 이제는 우리 게임을 할 거예요. 먼저 대화를 읽고 여러분이 직접 연극을 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재미있지요?

학습자: 네.

교수자: 그럼 같이 읽어보고 상황 하나를 골라서 친구와 같이 연극을 해 보세요.

대화

가: 실례합니다. 은행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저도 잘 모르는데 이쪽인 것 같아요. 아마 쭉 가면 보일 거예요.

가: 혹시 은행 근처 뭐가 있어요.
나: 은행 옆에 편의점 하나 있어요.
가: 네, 감사합니다.

가: 打扰一下。请问去银行的话走哪边？
나: 我也不是很清楚，好像是这边。可能直走的话就会看见了。
가: 或许银行附近有什么吗？
나: 银行隔壁有个便利店。
가: 好的，谢谢。

가: 얘기 들었어요? 옆 반 친구들이 너무 공부 안 해서 선생님이 혼냈어요.
나: 정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친절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가: 맞아요. 그 선생님이 성격이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옆 반 친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 그렇군요. 선생님이 정말 속상했겠어요.

가: 听说了吗？隔壁班的人一直不学习，老师都发火了。
나: 真的吗？那个老师好像很亲切啊。
가: 是的，都说那个老师性格很好。似乎是隔壁班的人太过分了。
나: 这样啊，老师一定很伤心吧。

(본 교시에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조절 주의해야 한다.)

교수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활동을 할 거예요.
연습 후 테스트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교시

교수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재미있게 게임을 했죠. 다 잘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한 번 풀어 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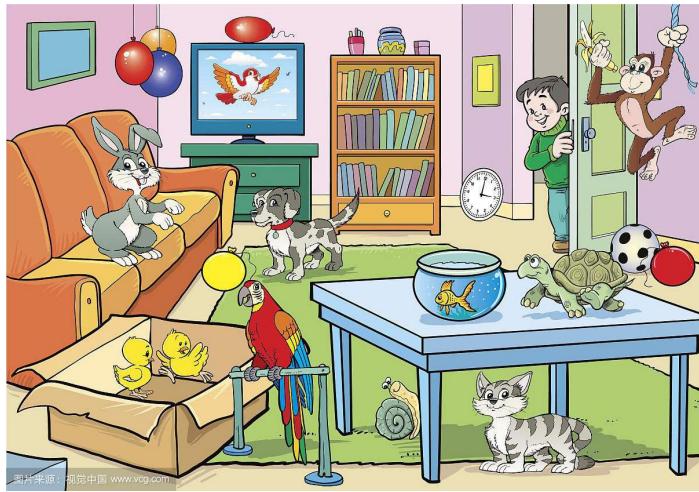
연습1

그림을 보고 추측해 보세요.

보기	 pixtastock.com ~ 5028231	비가 올 거예요. 要下雨了。
1		
2		
3		
4		
5		

연습2

그림을 보고 추측해 보세요.



보기	이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2	
3	
4	

(각 연습 활동 후 피드백)

테스트

- 1 다음 상황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 (1) 가: 요즘 많이 바빠요.
나: _____.
- (2) 가: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나: _____.
- (3) 가: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나: _____.
- (4) 가: 점심 갈비탕을 먹었어요.
나: _____.
- (5) 가: 내일 명절인데 휴강일까요?
나: _____.
- (6) 가: 마이클 씨가 시험을 잘 봤어요.
나: _____.

- (7) 가: 어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나: _____.
- (8) 가: 저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성격이 어때요?
나: _____.
- 2 다음 문장을 번역해 보세요.
- (1) 이번 여름 많이 더울 거예요.

- (2) 요즘 내장산의 경치가 좋겠어요.

- (3) 해운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 (4) 今天天气会很好的。

- (5) 小明父母来韩国了，会很开心吧。

- (6) 这件衣服穿起来一定会很漂亮。

- (7) 마이클 씨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 (8) 친구가 여행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유럽에 갈 것 같아요.

- (9) 이 치마가 수진 씨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 (10) 美善唱歌好像很好听。

- (11) 这学期好像有三次考试。

- (12) 昨天好像下雨了。

(테스트 후 설명 및 피드백)

교수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오늘 뭘 공부했어요?

학습자: 추측 표현 ...

교수자: 네, 맞아요. ... (다시 한 번 수업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 및 간단한 복습)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서도 좀 복습하세요.

- 36) 『재미있는 한국어』 2급 9과
- 37) 『재미있는 한국어』 2급 9과
- 38) 『서울대 한국어』 2급 8과
- 39) 『서울대 한국어』 2급 8과
- 40) 『연세 한국어』 1급 9-2과
- 41) 『연세 한국어』 1급 9-2과
- 42) 『연세 한국어』 1급 8-4과
- 43) 『연세 한국어』 1급 8-4과
- 44) 『재미있는 한국어』 1급 11과
- 45) 『재미있는 한국어』 1급 11과
- 4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급 15과
- 47) 『서울대 한국어』 2급 5과
- 48) 『재미있는 한국어』 2급 3과
- 49) 『재미있는 한국어』 2급 3과
- 50) 『연세 한국어』 1급 9-3과
- 51) 『연세 한국어』 1급 9-3과
- 52) 『서울대 한국어』 2급 6과
- 53) 『서울대 한국어』 2급 4과

V. 결론

본고는 한국어 추측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대해서 연구했다. 3가지 문법을 어떤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 현황 및 중국인 학습자 인식 현황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럼으로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 방안을 제시했다.

대조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상황별로 나누어서 중국어 추측 표현과 대응했다. 대조 결과로 '-겠-'과 '-(으)ㄹ 것이다'는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 會와 대응하고, 동사와 같이 쓰일 때 要, 會와 대응하고, 변함이 이루어질 때 要, 會와 대응한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好像, 似乎와 대응한다. 또한 예외 상황도 있는데 4장에서 대화문을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서 제시하는 예문의 번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번역이 교재마다 다르고 같은 교재 내에도 다르다고 해서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예문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표현에 대한 인식 상황을 분석했는데 인식이 매우 다양하며 역시 일관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교재에서 예문 제시 부분에 유래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예문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시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3가지 문법에 관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시했다. 제시 방안은 본고에서 대조한 결과를 적절히 이용하고 또 제시한 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제시 방안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고 있다. 초급에서 먼저 접근한 후에 중급까지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급에서는 접근하는 대화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했는데 중급에서는 특별 수업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간의 차이 및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일관되게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제시 방안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특히 한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제시 방안은 일관된 번역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적절히 이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연습, 활용 등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 사용에 관한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상황에 맞게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3), 『재미있는 한국어1-6』,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 커뮤니케이션북스
박덕유 외(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박문사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1-6』,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연세 한국어1-6』,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16), 『서울대 한국어1-6』, 하우
허용,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김동욱(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국어학회, 국어학 Vol. 35 p171-197

이윤진(2007), 『한국어 교육에서 "–것 같다" 제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Vol. 34 p324-347

이준호(2010), 『한국어 유의 문법 교육을 위한 TTT 모형의 활용 방안 –추측 표현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2 p174-186

전나영(1999), 『'–나 보다/–ㄹ 모양이다/–ㄹ 것 같다/–ㄹ 것이다/–겠다'의 의미기능』,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23 No.1 p169-198

- 김금(2012), 『한국어 추측·의지의 양태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령(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니(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推測)'의 통어적 문법소(通語的 文法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2015), 『한국어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 증거성을 중심으로』,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은희(2003),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 추측 범주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아영(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표현 대조 연구 : '-겠 -, -(으)ㄹ 것이다, -ㄴ가/나 보다, -ㄴ/는/ㄹ 것 같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교(2015), 『한국어 추측표현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 -은/는/을 것 같다, -은/는/을 모양이다, -나 보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과 「의지」 표현의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룡(201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2017), 『추측 표현의 한·중 대응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단화(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군(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의 의미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李小军(2015), 『相似比拟推测否定好像似乎仿佛的多维分析』, 江西师范大学, 汉语学习 No.2 p3-13

吕勇兵, 吕晓燕(2003), 『试论副词好像仿佛与似乎』, 吕梁高等专科学校 胡兰中学, 吕梁高等专科学校学报 Vol. 19 p57-59

齐沪扬(2002), 『论现代汉语语气系统的建立』, 上海师范大学, 汉语学习 No. 2 p1-12

徐晶凝(2000), 『汉语语气表达方式及语气系统的归纳』, 北京大学, 北京大学学报 Vol. 37 p136-141

张璐(2011), 『浅析好像的语法化』, 辽宁师范大学, 语文学刊 p45-46

周晓利, 曾传禄(2015), 『“可能”和“也许”的语义句法语用分析』, 贵州师范大学, 洛阳师范学院学报 Vol. 34 p118-123

徐晓菁(2007), 『现代汉语可能情态研究』, 华东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中文摘要

為了中國人學習者的韓中推測表現對照及展示方案研究

邱暢輝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

研究生院

漢城大學

本文是為中國人學習者進行的一項研究。旨在讓中國人學習者更好的學習和認識韓語推測表現。在對韓語和中文的一部分推測表現進行了對照研究的同時，就現在使用中的韓國語教材進行了分析，提出了問題。並對中國人學習者對於韓語推測表現的認知現狀進行了調查。而後在此基礎之上，制定了韓語推測表現的展示方案。

具体内容为，第二章对韩国推測语法'−겠−'、'−(으)ㄹ 것이다'、'−(으)ㄴ/는/(으)ㄹ 것 같다'与中文推測语法进行了理论知识的介绍，而后进行了对照研究。通过对照得出，'−겠−'可以和要、会对应，'−(으)ㄹ 것이다'可以和要、会对应，'−(으)ㄴ/는/(으)ㄹ 것 같다'可以和好像似乎对应。以上语法在對應的同時有的一些制約和先決條件也在文中一併指出。第三章對教材以及中國人學習者的韓語推測語法使用現狀進行了分析。通過分析得出，一部分教材對例文進行了翻譯，但是翻譯結果不盡如人意。同樣的韓語推測語法翻譯成中文時，並不具備一貫性，同時也有一些翻譯不自然的部分。同時，中國人學習者對韓語推測語法的認知程度上有較大的差異以及不足。本人認為這樣的認知不足來自

於之前闡述的關於教材的問題。因此，在第四章中，針對這樣的情況，制定了一系列的展示方案。方案分為初級和中級兩個水準。在初級方案中，提出了一系列恰當翻譯的例文，以此代替前文中提到的翻譯不恰當的例文。在中級方案中，提出了相對應的教育方案，並以教案為例，對包括語法展示、語法說明、語法比較、練習、活動在內的一系列過程進行了詳細說明。

本人認為，通過以上一系列過程，可以對中國人學習者在學習韓語推測語法方面有較大的說明。通過這樣的正式化，一貫化的例文翻譯，可以幫助中國人學習者更好的認識韓語推測語法，並正確規範的使用韓語推測語法。

